

다음 기도양식에 따라 개인/소그룹으로 기도하는 경우,
'작은 상, 십자가, 초, 성서'를 준비하면 좋습니다.

Memento homo,
2020년 3월 8일(사순2주일)

개인/소그룹 기도 양식

quia pulvis es,
이제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 침묵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모두를 위해 마음을 모읍니다.

이때 'Insight Timer' 등의 어플을 사용해 종을 울리고, 2-3분 동안 잠시 침묵합니다.

1. 여는 노래

<https://soundcloud.com/pilgrim-8/kyrie-eleison>

키리에 엘레이손

이지음

♩ = 60

F Cm7 B \flat B \flat m

키 리 에 엘 레 이 손 주 여 우 리 에 게 - 자 비 를 베 푸 소 서 -

F Cm7 B \flat B \flat m

그 리 스 데 엘 레 이 손 이 시 간 우 리 를 - 불 쌍 히 여 기 소 서 -

© 2013 이지음. All rights reserved. Used by permission

2. 시작기도

혼자인 경우, 인도자(†)나 함께하는 이들(◎)과 상관 없이 천천히 읽습니다.

여럿인 경우, 인도자(†)와 함께하는 이들(◎)을 나눠 번갈아 가며 읽을 수 있습니다.

† 주님께서 이제 여기에

◎ 우리와 함께 하소서.

† 기도합시다.

자애로우신 하느님, 지극한 사랑과 인내로 보살피시나이다. 비오니,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느님의 진실한 자녀가 되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3. 시편 교송 - 시편 32편

혼자인 경우, 아래 시편을 천천히 읽습니다.

여럿인 경우, 아래 시편을 번갈아 가며 읽을 수 있습니다.

1. 이 산 저 산 쳐다본다. ○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2.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 ○ 주님께에서 나의 구원은 오는구나.
3. 네 발이 헛디딜까 주, 너를 지키시며 ○ 졸지 아니하시리라.
4.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 ○ 졸지 않고 잠들지도 아니하신다.
5. 주님은 너의 그늘, 너를 지키시는 이, ○ 주께서 네 오른편에 서계신다.

6. 낮의 해가 너를 해치지 않고 ○ 밤의 달이 너를 해치지 못하리라.
7. 주께서 너를 모든 재앙에서 지켜 주시고 ○ 네 목숨을 지키시리라.
8. 떠날 때에도 돌아 올 때에도 ○ 너를 항상 지켜 주시리라, 이제로부터 영원히

◎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4. 성서독서

1독서, 창세 12:1-4상

1야훼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네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장차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2 나는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너에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떨치게 하리라. 네 이름은 남에게 복을 끼쳐주는 이름이 될 것이다. 3 너에게 복을 비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내릴 것이며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저주를 내리리라. 세상 사람들이 네 덕을 입을 것이다.”

4아브람은 야훼께서 분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함께 떠났다.

2독서, 로마 4:1-5, 13-17

1 우리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의 경우는 어떠했습니까? 2 만일 아브라함이 자기 공로로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얻었다면 과연 자랑할 만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느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었습니다. 3 성서에 “아브라함은 하느님을 믿었고 하느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다.” 하지 않았습니까? 4 공로가 있는 사람이 받는 보수는 자기가 마땅히 받을 품삯을 받는 것이지 결코 선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5 그러나 아무 공로가 없는 사람이라도 하느님을 믿으면 믿음을 통해서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얻게 됩니다. 하느님께서 비록 죄인일지라도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13 하느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세상을 물려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켰다 해서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하셨기 때문에 하신 약속이었습니다. 14 만일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만이 상속자가 될 수 있다면 믿음은 무의미하게 되고 그 약속은 무효가 됩니다. 15 법이 없으면 법을 어기는 일도 없게 됩니다. 법이 있으면 법을 어기게 되어 하느님의 진노를 사게 마련입니다.

16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상속자로 삼으십니다. 이렇게 하느님께서 은총을 베푸시며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사람들에게까지, 곧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에게 그 약속을 보장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17 성서에 “내가 너를 만민의 조상으로 삼았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하느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복음, 요한 3:1-17

1 바리사이파 사람들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인들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는데 2 어느 날 밤에 예수를 찾아와서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을 하느님께서 보내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고서야 누가 선생님처럼 그런 기적들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3 그러자 예수께서는 “정말 잘 들어두어라. 누구든지 새로 나지 아니하면 아무도 하느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고 말씀하셨다. 4 니고데모는 “다 자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다. 5 “정말 잘 들어두어라.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6 육에서 나온 것은 육이며 영에서 나온 것은 영이다. 7 새로 나야 된다는 내 말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8 바람은 제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고도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누구든지 이와 마찬가지로다.”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자 9 니고데모는 다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10 예수께서는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이름난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모르느냐? 11 정말 잘 들어두어라.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말하고, 우리의 눈으로 본 것을 증언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2 너희는 내가 이 세상 일을 말하는데도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늘의 일을 두고 하는 말을 믿겠느냐? 13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간 일이 없다. 14 구리뱀이 광야에서 모세의 손에 높이 들렸던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높이 들려야 한다. 15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16 하느님은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주셨다.

17 하느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단죄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시켜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5. 말씀 나눔

공유한 설교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전염병 재난과 사순절기.

우리는 무엇을 질문하고 답하는 그리스도인이어야 하는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때가 때이니 만큼, 최근 온 나라가 몸살을 앓고 있는 전염병 재난 사태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할까 합니다.

요즘 ‘코로나19’라는 전염병 재난 때문에 한국사회는 온통 불안과 공포, 혼돈으로 미끄러지고 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지난 몇 개월 동안 우리는 참으로 많은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 일들은 이 땅에 머물러 사는 사람들이라면 모두에게 영향을 주는 사건입니다.

우리들은 매일 아침, 매스미디어에서 흘러나오는 숫자와 반복되는 감염예방수칙에 사로잡히고 있습니다.

그것 자체로는 ‘사실’이니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문제는 그 숫자와 수칙에 여러 추측과 온갖 가짜 뉴스들이 덧붙여 퍼지며 점점 우리를 경색되게 하는데 있습니다.

가뜩이나 ‘저(低)신뢰 사회’에 각자도생 분위기가 강한 나라인데 서로를 더 못 믿게 되니,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크게 ‘신천지와 마스크’라는 두 가지 이슈로 분노하거나 의견이 갈립니다. 종교를 빙자한 사기 집단에 가까운 신천지에 대해서는 그렇다 치고, 제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살폈던 부분은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운 사람들의 분노였습니다. 물론, 흔하게 구할 수 있던 마스크를 어려운 과정을 거쳐도 쉽게 구할 수 없으니, 화가 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다만 제가 눈여겨 본 건, ‘자신들의 기득권이 곧 국가와 사회의 이익’이라고 굳게 믿는 집단이 ‘마스크 품귀 현상’에 대해 연일 내놓은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은 ‘가진 사람들의 사유재산은 무엇보다 우선해서 지켜야 한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공공의 이익이나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정부나 사회가 사유재산에 대한 다양한 활용과 제한을 얘기하면, 곧바로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 빨갱이’ 운운하며 공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감염예방수칙에 덧붙여진 추측과 불안 그리고 최소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미숙했던 정부 대응으로 인해 발생한 마스크 품귀 현상에 대해서는, 매우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며 정부를 비판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마스크 품귀 현상을 일으킨 미숙한 정부 대응에는 불편함을 많이 느낍니다.

처음부터 일관된 메시지로 ‘건강한 사람은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거나, 면 마스크로도 괜찮다’고 계속 전하며,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메시지와 병행하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도 큼니다.

그럼에도 요즘처럼 ‘마스크 품귀 현상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정부 탓’이라는 듯한 일부 정치 그룹과 언론의 메시지나 태도에는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하게 들여다봐야 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곁에는 이번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사람의 왕래와 모임이 끊기고 수입이 줄어 고통 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분들에게 절대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요소인 ‘임차료’에 대한 여러 의견과 문제 제기가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그리 큰 반향 없이, 그저 ‘착한 건물주 운동’이나 ‘임차료를 깎아주는 임대인에 대한 50% 세제 지원’ 정도만 회자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과잉된 불안과 공포에 휩쓸린 마스크 대란에 대해서는 다들 분노하면서, 이번 재난 이후에도 꽤 오랫동안 후폭풍으로 휘청거릴 임차인들, 그리고 그와 연관된 이들의 생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부동산으로 인한 과잉 불로 소득의 나눔’에 대해서는 왜들 별로 관심이 없는 걸까요?

마스크 사재기 이슈는 ‘안전에 대한 감각과 은유’를 건드리는 부분이고, 부동산으로 인한 과잉 불로 소득을 나누는 이슈는 ‘나와는 먼 얘기’처럼 느껴지기 때문일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와 우리의 안전에 직결된 것처럼 여겨지는 마스크는 흔히 구할 수 있던 것인데, 그마저 경제적 차이나 정보 접근성 차이로 인해 구하기 어렵게 되면서 더 크게 분노하는 것일까요?

그에 비해, 임차료와 부동산으로 인한 과잉 불로 소득 문제는 복잡하기도 하고 ‘특정한 사람들의 이야기’라 말 한마디 엮는 건 가능해도, 당장 나와 관련된 일은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은 걸까요?

하지만 사순 2주일의 성서 말씀을 마주한 제가 보기에 ‘마스크 품귀로 인한 논란’이나 ‘부동산으로 인한 과잉 불로 소득의 나눔에 대한 낮은 관심’은, 모두 ‘당연한 것들에 대한 질문과 응답하는 삶’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마스크 품귀로 인한 논란을 부추기는 일부 정치 그룹과 나쁜 언론은 지금까지 반복되어 온 수많은 갈등과 분노 앞에서 항상 책임을 회피하며, 더 가진 이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논리와 몸부림을 적극 옹호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흐름에 동조하거나, 반대로 자신들의 무능이나 문제들도 그들을 ‘악마화’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이들의 극단적인 싸움은, 상대적으로 작고 연약한 자리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성공회 용산나눔의집과 길찾는교회 식구들이나 우리와 비슷한 자리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은 직간접적으로 더 불안하고 어려워졌습니다.

예를 들어, 마스크 품귀 현상 가운데 우리의 가난한 이웃들은 물론, 장애를 가진 사람, 등록/미등록 이주민, 여러 돌봄 노동을 지속해야만 하는 노동자들은 더 소외되고 지금도 계속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불안과 갈등 그리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사회 지도자들의 행태는 사회를 더 보수적이고 닫힌 구조와 분위기로 만듭니다. 그 가운데 더 작고 연약한 자리에서 뭣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더 많은 위협과 불안에 노출됩니다. 그들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의 삶도 더 힘들어집니다.

우리는, 우리 안팎에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가난한 사람들’의 삶이 더 나아지고 평등해지기 위해서 여러 변화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 변화 없는 평화나 통합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더 작고 연약한 자리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삶을 착취하는 선택이란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2020년 오늘, 사순절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하다’라고 얘기되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하고 도전하는 태도와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저는 오늘 성서 말씀이 우리에게 ‘당연한 것들에 대해 다시 한 번 다르게 질문하며 도전하는 태도를 가지라는 용기’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성서와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거듭남’이란 이렇게 ‘당연한 것들에 대해 다시 한 번 다르게 질문하고 도전하는 태도와 용기를 갖게 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1독서는 우리가 신앙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알고 있는 아브람이, 야훼 하느님의 은총으로 ‘새로운 복’을 약속받았고 그 약속의 길로 떠났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2독서에서는 그런 아브라함이 ‘민족의 조상’이자 ‘하느님과 동행한 사람들의 선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복된 명칭을 받게 된 것은 아브라함 자신의 공로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느님의 은총에 응답하는 믿음 때문일 뿐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하느님의 은총에 응답하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을 ‘방향 전환의 용기’라고 표현합니다. 좀 더 풀어서 말하자면, ‘우리들의 질문과 삶의 태도를 바꾸는 용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서 등장하는 니고데모와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과 대화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당시 유대인들의 지도자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다만,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수군거리며 터부시하던 다른 이스라엘 지도자들과는 다른 부류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밤에 찾아오긴 했으나, 그는 예수님을 찾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을 하느님께서 보내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고서야 누가 선생님처럼 그런 기적들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요한 3:2).

예수님을 의심하거나 적대시하던 다른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니고데모는 달랐습니다. 최소한 그는 예수님을 ‘하느님이 보내신 선지자이자 랍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 ‘이스라엘이 믿고 따르던 야훼의 가르침을 잘 해석하고 인도해줄 사람 중 한 명’으로 대했을 뿐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이스라엘이 믿고 따르던 야훼의 가르침을 유효적절하게 알려주고, 이전까지와 다르게 살게 하는 새로운 길’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야훼 하느님을 만나기 전에 아브람은 ‘큰 아비’로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야훼 하느님이 그를 선택하여 부르시고 그가 믿음으로 응답하자, 그는 ‘온 세상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니고데모도 비슷한 기회를 얻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유대인들의 지도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예수님을 찾아와 문답을 주고받은 뒤, 새로운 길로 나아갈 기회를 얻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의 길이자 구원의 길로 안내하는 은총의 사람이 되도록 초대받았습니다.

이제 그도 다른 제자들처럼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넘어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는 길에 합류하도록 초대받았습니다(로마 4:16).

이처럼 과거를 뒤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에 응해 새로운 길로 들어서는 ‘단절과 연속, 승화의 과정’을 제자들과 고대 교회는 ‘새로 태어남’으로 이해했습니다.

우리, 고대 교회의 스승 가운데 한 명인 대 바실리우스가 이에 대해 덧붙인 해설을 한 목소리로 읽어 봅시다.

새로 태어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두 번째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 삶을 시작하기 전에 첫 번째 삶을 끝내야 합니다.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이 반환점을 돌아 두 번째 주로를 달려야 할 경우, 반대 방향으로 뛰기 전 잠시 멈추는 것처럼, 인생에서 변화가 이루어질 때에도 두 인생 사이에 죽음이라는 중개자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모든 것은 끝나고 뒤에 오는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 대 바실리우스, 『성령론』 15.35., <교부들의 성경주해: 신약성경 V>, 214-215쪽.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은 이처럼 ‘전환점’을 돌아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만 당신의 제자와 식탁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잘 들어두어라.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나온 것은 육이며 영에서 나온 것은 영이다. 새로 나야 된다는 내 말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바람은 제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고도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누구든지 이와 마찬가지로.”(요한 3:5~8)

야훼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네가 이해하던 복, 그 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던 네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래야만 내가 네게 베풀 새로운 복과 은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 하셨습니다(창세 12:1). 아브람은 그 야훼 하나님의 초대에 응했고, 아브라함으로 바뀐 이름으로 그 은총의 길에서 야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니고데모도 아브람과 비슷한 초대를 받습니다.

그는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와의 문답에서, 지금까지 그가 생각하던 율법과 그 율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전혀 다른 이해와 약속에 대해 듣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질문과 태도를 바꾸라고 요청하십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그 생명과 구원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질문과 태도를 바꿔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은총에 응답하는 믿음을 갖는 사람이 되는 길은 ‘순응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제대로 된 질문을 하며, 그 질문에 응답하는 태도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순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질문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에 대해 제대로 질문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어떤 질문과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 묻고 답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2020년 사순절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교회와 사회에 대해 질문 없이 순응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계속 질문하며 그 질문에 답하는 태도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와 우리의 ‘안전에 대한 감각과 은유’를 위협하는 마스크 품귀 현상에 대해서도 다시 질문하고 그 질문에 답하는 태도로 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스크 대란에서 누가 소외되고 우리의 선택과 도움은 어떤 이들을 위해야 하는지 질문하고 답했으면 좋겠습니다.

뜻하지 않게 전염병에 걸려 고통 받는 당사자와 가족들을 ‘퇴치하거나 격리해야 할 바이러스 자체’인 것처럼 대하는 사회 일부의 분위기에 대해 다시 제대로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환자로부터 바이러스를 물리나게 하거나 격리해서 치료하는 것과, 그 환자와 가까운 이들을 바이러스처럼 대하는 일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재난 상황 가운데 닳을 잃고 내일을 기약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다시 질문하며 답하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안 되는 수입마저 줄거나 끊겨 고통 받고 내일을 기약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 소득을 나누는 일’은 물론, 매우 실질적이거나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에 대해 질문하고 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함께 겪고 있는 이 재난 상황을 모두가 아비규환으로 미끄러지는 지름길이 아닌, ‘새로 태어나는 나와 우리’가 될 수 있는 전환점으로 삼는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이런 성서의 가르침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며 잠시 묵상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이 설교문 일부는 2017년 사순 2주일 설교문에서 가져왔습니다.

6. 사도신경

† 나는 믿나이다.

◎ 전능하신 하느님,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하느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어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느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상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나이다. 아멘

7. 교회와 세상을 위한 기도

참회연도

† 교회와 세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 지극히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느님,

우리는 주님과 또한 우리 서로에게, 그리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성인들 앞에서,
생각과 말과 행위로 저지른 죄와, 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죄를 고백하나이다.

◎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 우리는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으며,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고, 남을 용서하지 못했나이다.

◎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 우리는 서로 섬기라 하신 주님의 명령에 무관심하였고,
그리스도의 뜻에 진실하지 못했나이다.

◎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 우리는 불충하고 교만하고 위선적이었으며,
참을성이 없었고, 자신의 욕망대로 살며 사리사욕만을 위해 살았나이다.

◎ 주여,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나이다.

† 우리는 세상 안락과 평안만을 위해 살았고, 일상생활에서 정직하지 못했으며,
기도와 예배를 게을리 하고 마음속에 믿음을 세우는 일에 소홀히 했나이다.

◎ 주여,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나이다.

† 주여, 회개하오니, 우리는 이웃에게 자비심이 없었고,
편견을 가지고 생각이 다른 이들을 경멸했나이다.

◎ 주여,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소서.

† 우리가 이웃의 궁핍과 고통을 돌보지 않았으며,
불의와 폭력에 무관심하고 주님의 창조물을 훼손하고 낭비하여
후손들을 배려하지 않았나이다.

◎ 주여,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소서.

† 주여, 진노하심을 거두시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져
주님의 영광이 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소서

◎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수난으로,
우리가 모든 성인과 함께 부활의 영광과 기쁨에 참여하게 하소서.

◎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온 인류를 지으시고 지켜주시는 하느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겸손히 비오니,

사람들에게 주님의 길을, 모든 민족에게 주님의 온전한 구원을 깨닫게 하소서.
또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곤경에 처한 이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그들의 처지에 따라 위로 하시고 도와주소서.
더불어 그들이 고통 가운데서 인내하게 하시고,
모든 환난을 벗어나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느님,
비오니, 주님의 거룩한 공교회를 진리와 평화로 채워 주소서.
부패한 곳은 정결하게 하시고,
잘못에 빠져있는 곳은 바로 잡아 거듭나게 하시며,
옳은 것은 굳건히 지켜 주시고, 부족한 것은 채워 주시며,
분열이 있는 곳은 다시 하나가 되게 하소서.

성 프란시스의 '평화의 기도'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삼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는 사랑을,
모욕이 있는 곳에는 용서를,
불화가 있는 곳에는 일치를,
의심이 있는 곳에는 믿음을 보이게 하소서.
절망이 있는 곳에는 희망을,
어둠 있는 곳에는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는 기쁨을 보이게 하소서.
위로받기 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 보다는 이해하고,
사랑받기 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이는 우리가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신을 온전히 버림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이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8. 주의 기도

†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니다.

- ◎ 하늘에 계신 우리 하느님,
온 세상이 당신을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하느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느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이를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하느님의 것이옵니다. 아멘

9. 끝기도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친교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소서.

◎ 아멘

10. 나가는 노래

https://soundcloud.com/ze9/song_of_lent

음원은 악보 보다 높은 키로 만들어졌습니다.

악기 연주가 가능할 경우 음원을 참조하여 연주해보거나

무리하지 않으며 따라서 불러봅니다.

사람아 기억하라

이지음

E Bm7 A E Bm7 A

사람 아 기 억 하 라 우리 는 흠 이 었 다
 사람 아 기 억 하 라 우리 는 별 이 었 다

C#m7 B A C#m7 B A

사람 밑 에 사람은 없 다 죽음 앞 에 우리는 갈 다
 사람 위 에 사람은 없 다 하늘 아 래 우리는 갈 다

E B G#m A C#m7 B A

그 언 져 가우리는 같 아 질 것 을 사람 아 기 억 하 라
 그 언 져 가우리는 같 았 던 것 을 사람 아 기 억 하 라